

## 2학년 1반 반별 한마디 릴레이 소설

주제: 코믹

- 20101 강예은: 오늘 학교에 갔다.  
20102 공나겸: 공부는 (뒤에서) 1등 성격은 최상급!  
20103 김세민: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 리 없어 무리무리!  
20104 김연우: 그런데 내 눈 앞에 나타난 이 남자... 뭐지?  
20105 김예은: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??  
20106 김채은: 헐 충격이야  
20107 김희은: 저게 뭐야...? 이에 고춧가루가 켜어!!!  
20108 민유경: 저 남자 이에 고춧가루가 낀 상태로 게다리춤을 추고 있어!!  
20109 박서연: 혹시 게일까?  
20110 박시은: 아니면 트랜스젠더일까...?  
20111 성채련: (남자가 나를 쳐다본다 획!) 심쿵...  
20112 신현욱: 허억 심장이 두근두근 하자나  
20113 안미라: oh my shit! 저 남자 내 거다! come on 나의 플러팅을 받아라!! 앗쿵  
20114 오세은: 아앗... 찌.릿!...  
20115 윤주빈: 제발... 내 마음이 달기를...  
20116 이시은: 아니!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!!  
20117 이유진: 넌 나만의 것이야. 너 내 도ㄷㄷ도동료가 돼라!  
20118 이준희: 내 옆에서 평생 게다리춤을 추는 거야...  
20119 이지현: 게다리춤?! 게 먹으러 가야겠어  
20120 이하늘: 포항항^^  
20121 임예나: 포항은 대게지~ 획~  
20123 전다경: \_  
20124 전유빈: 그치만 포항에 있는 대게가 모조리 다 죽어 버렸다...  
20125 정문교: 그렇다면... 이제 내게 남아 있는 것은?!  
20126 정민정: \_  
20127 조승화: 내 옆에서 날 보며 게다리춤을 추는 동료, 그럼 난 이제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할까?  
20128 조은빈: 바다로 가자!  
20129 하선경: 거절당한다. (뺨을 때리며)  
20130 하예린: 아야... 집에 갈래  
20131 황정원: 둘은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 덮고 굴 까먹으면 잘 살았답니다~~

## 2학년 2반 반별 한마디 릴레이 소설

주제: 로맨스

20201 갈혜윤: 그날은 평소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금요일 밤 10시였다.

20202 강예은: 그래서 그랬던 걸까. 내가 그날 밤...문만 열지 않았더라면.....

20203 고가연: 문 넘어에 들려오는 매혹적인 악기 소리에 이끌려 나는 문을 열어 볼 수 밖에 없었다.

20204 김가은: 방 안에는 인형이 있었다. 난 무엇에 홀린 듯 인형에게 말을 걸었다.

20205 김가현: 인형에게 말을 걸자 눈 앞에는 칼을 든 고조 사토루의 새파란 눈이 보였다.

20206 김규민: 거짓말이길 바랐다..... 놀랍게도 그는 알몸이었다.....!

20207 김도희: 그는 알몸으로 다른 한 쪽 손에는 탕후루 다섯 개를 들고 웃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.

20208 김민서: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문을 닫아버렸다.

20209 김유현: 그러자 고조는 문을 벌컥 열고는 화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. "닌자가되"

20210 김윤아: 나는 소리를 질렀다. 그러곤 그를 바라보았다.

20211 김지윤: 고조 사토루는 손에 든 탕후루를 표창처럼 던졌다. '퍽. 퍽. 퍽.' 탕후루가 박살 나버렸다.

20212 김채은: 나는 탕후루가 맛있어보여서 결국 박살 난 탕후루를 주워먹었다.

20213 김태윤: 아니... 정확히는 먹으려고 했다. 고조 사토루가 나의 손을 낚아채갔기 때문에 먹지 못했지만

20214 마지원: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.

20215 문예리: 갑자기 나는 남자로 변해버렸고, 날 본 고조 사토루는 놀라서 기절하고 내 앞으로 쓰러졌다.

20216 박윤화: 나는 말했다. "닌자가되~" 그러자 고조가 깨어나더니 "그러면되~"라고 말하자 다시 여자가 됐다.

20217 신주영: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기절해 버렸다.

20218 안지원: 눈을 떠보니 고조 사토루의 말랑한 입술이 나의 입술과 맞닿고 있었다. 그렇다 그가 나에게 키스한 것이었다.

20219 오고은: 꿈쩍한 느낌에 깨어보니 다 꿈이었다.

20220 이세연: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눈 앞엔 아직 고조 사토루가 있었다.

20221 이승아: 나는 너무 놀라서 그에게 발차기를 날렸다.

20222 이승아: 고조 사토루는 가뿐히 내 발차기를 피하고 내 발목을 잡았다.

20223 이지영: 식겁한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했다.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탓에 시도로 그쳤다.

20224 이진은: 알몸인 그는 내 발목을 잡고 옷을 달라하였다. 급하게 아빠의 나시와 트렁크 팬티를 꺼내주었다.

20225 이초은: 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구매처를 물었다.

20226 이희선: 모르겠다고 했더니 고조 사토루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. 어라라 고조 사토루가 재미로 변해 버렸다.

20227 정다연: 재미로 변한 고조 사토루는 열심히 기어가기 시작했다.

20228 정아영: 일반 재미였으면 그냥 끝났을 터인데... 저건 백프로 날 먹으러 오는 거다!

20229 허수경: 개미가 날 먹을려고 하는 순간,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. 몸이 개운하고, 기분이 상쾌했다. 9시를 의미하는 알람이 울렸다. 월요일이었다.

## 2학년 3반 반별 한마디 릴레이 소설

주제: 코믹

20301 갈민지: 바바리맨이 학교에 찾아왔다.

20302 권민정: 바바리맨과 마주친 순간, 다같이 마인크래프트 세계관에 들어가져버렸다...

20303 김가은: 크리퍼와 바바리맨을 묶어두고 나는 세계관에서 탈출했다.

20304 김경은: 가깝스로 탈출한 나는, 우연히 길 건너편에 있는 원빈을 보러 뛰어가다가 이세계 트럭에 치여버렸다.

20305 김도희: 그렇게 이세계로 환생한 내 눈앞에 섰시 폭군 황제와 한섬 시골 소년st 북부대공이 나를 두고 싸우고 있었다.

20306 김미량: \_

20307 김아람: 내 취향스런 북부대공에게 반해 그와 함께 추운 북부로 가기로 했다.

20308 김윤아: 이런...~! 북부대공은 정말 북부만 말하는 사람이었다. "북부! 북부!"

20309 김태림: 질려버린 나는 북부대공 몰래 한섬 시골 소년과 바람을 폈다.

20310 김하은: 바람을 폈다는 사실이 찢려서 북부대공에게 사실대로 말하자, 북부대공은 나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었다.

20311 문성은: "사실 난 예비 남편이 있어. 네가 정말 좋지만 정략결혼이라 어쩔 수 없이 곧 떠나야 할 것 같아."

20312 문혜정: 난 그 말을 듣고는 심장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. "오히려 좋아."

20313 박민주: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뛴 나머지 난 죽고 말았다.

20314 박정현: 라는 꿈을 꿔다.

20315 신민경: \_

20316 안수빈: \_

20317 안채연: 지금까지의 일이 모두 꿈이라는 걸 깨달자 나의 엉덩이(おしり)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. 마치 내가 박병찬을 처음 본 순간 불타버린 나의 심장과 같이,

20318 우혜민: 엉덩이뿐 아니라 몸 전체가 뜨거워져 불 타기 시작하더니 꿈속처럼 다시 마인크래프트 용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.

20319 유다현: 그때 누군가 나를 구해하는데 바로 꿈속에서 묶어두었던 크리퍼였다...!!

20320 윤혜민: 크리퍼가 터졌다.

20321 이선명: 크리퍼가 터짐과 동시에 반동으로 난 육지에 올라올 수 있게 됐지만 내 뼈와 살은 이미 불길에 의해 다 타버린 후였다. "고쵸 뽀치는 아름다운 내 몸이..."

20322 이예령: 내 몸이 다 타버린 것에 충격을 받아 나는 정신을 놓아버렸다.

20323 이채연: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이세계였다.

20324 이채희: 이세계에 도착하니 예쁜 엘프가 반겨준다.

20325 장유정: 엘프가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.

20326 정연재: 엘프들은 나를 환영해주며 식사를 대접하였지만, 다들 채식주의자라 풀떼기 밖에 없었다.

20327 조수민: \_

20328 최예영: 처음 보는 채소들을 입에 넣은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쓰러졌다.

20329 홍나정: 그러고는 잠에서 깬데 북부대공의 결혼식이 한창이었다... 알고보니 그의 남편이 한섬 시골 소년이였다!!!

20330 황예원: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.

## 2학년 4반 반별 한마디 릴레이 소설

주제: 로맨스

20401 강도화: 1999년 8월의 여름, 나는 그녀를 잃었다.

20402 강지우: 그녀는 살아 생전 빨간 리본을 매우 좋아했다.

20404 김나연: 하지만 나는 파란색을 좋아했다.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지...

20405 김서연: 그렇지만 우린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겼다.

20406 김시연: 1년 전 난 파란 바닷가에서 홀로 빨간 리본을 쓰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.

20407 김은비: 머리칼을 풀어헤치며 리본을 떨어뜨리고 그녀는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.

20408 김지현: 태양을 삼키고 있는 바다에서 그녀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바라보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보고있었다. "...어..어, 잠시만요!"

20409 김태윤: 그러자 그녀는 노을이 흘러내리는 듯한 긴 생머리를 휘날리고 연갈색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았다.

20410 김태희: 그 순간, 나의 모든 것은 멈춰 버렸고, 그녀는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.

20411 나다은: "야 변백현! 일어나!" 라는 소리와 함께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. 꿈이었던 것이다... 그리고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.

20412 나예진: "자 전학생 자기소개 할까~?^^" 담임이 말했다.

20413 박서연: "안녕 난 박조연이라고 해." 조연의 소개를 듣는 순간, 백현이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. 저 애는 바로...

20414 박제희: 꿈속에서 만난 바로 그...

20415 박지은: 여자를 본 순간 백현은 아까 전의 꿈이 떠올랐다.

20416 성은혜: 그날 인류는 떠올랐다. 그 녀석들에게 지배당하던 공포를.

20417 신혜원: "아... 아닛...!? 저 사람은?!"

20418 오세윤: 싸패였다.

20419 오하정: 란 마음을 잠시 추스린 것도 잠시, 다른 아이가 새로이 전학 왔다.

20420 윤채희: "아니... 저 애가 바로 진짜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애?!?"

20421 윤혜정: "자 여주는 들어가서 백현이 옆자리에 앉으렴~^^"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심장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다.

20422 이서연: 쭈뼛쭈뼛 걸어가 백현이의 옆자리에 앉은 여주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.

20423 이아연: "안녕...?"

20424 이연서: "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...?"

20425 전예지: 창문 사이로 바람이 휘날리며 백현이 말하였다.

20426 정시은: 여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"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고...?" 말을 더듬었다.

20427 정지나: 갑자기 여주의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프기 시작하더니 어딘가에서 본 듯한 장면이 눈앞에서 보이기 시작했다.

20428 제민아: 북부대공 아스라한이 그녀에게 말했다. "공주님 일어났어?"

20429 조민서: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.

20430 주연지: 붉어진 얼굴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"아스라한... 나 사실 시한부예요...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거 같아..."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긴 채 죽은 라리에트 그녀가 김여주로 환생한 것이었다.

20431 홍해정: \_

## 2학년 5반 반별 한마디 릴레이 소설

주제: 로맨스

- 20501 강수민: 사랑은 사탕과 같다.  
20502 강혜인: 사탕처럼 달지만 잘 녹는다.  
20503 국태은: 잘 녹는 건 나의 마음이었다.  
20504 김민서: 그대와 눈이 마주쳤다.  
20505 김연오: 행복하던 날, 함께하던 우리. 즐거운 한 해를 보낸 것 같다. 짧은 시간인 거 같지만 즐거웠다.  
20506 김예진: 다시는, 겪을 수 없는 18살의 여름...  
20507 김은서: 그날의 온도, 습도... 여름이었다.  
20508 김채연: 이런 여름... 유독 더 뜨거웠다...  
20509 김희원: 아앗...! 뜨거!  
20510 노정아: 데일 만큼 뜨거웠다.  
20511 박서연: 하지만 그건 한순간이었다.  
20512 박서진: 그를 본 순간,  
20513 박수빈: 난 흥분되었다.  
20514 박수진: 심호흡을 했다.  
20515 서예진: 내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.  
20516 서채연: 미안하다고 해. 좋아한다고 해.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좋아한다고 해.  
20517 송다혜: “쪽”... / 뭐... 뭐 한 거야?  
20518 심채은: 너 좋아한다고  
20519 오가현: 얼굴이 빨개진다.  
20520 유소미: 다이스키□♡  
20521 이선지: 널 좋아해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 
20522 이여진: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.  
20523 이채빈: 쉽게 답할 수 없었다.  
20524 임나연: 난 그 애의 표정을 볼 수 없어 도망갔다.  
20525 임서현: 그 애는 내 손목을 잡았다.  
20526 정은솔: \_  
20527 정지혜: 집에 왔다.  
20528 천예림: \_  
20529 최은진: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... “집 앞이야. 잠깐 나와.”  
20530 홍은재: 그렇게 우린 장맛비 속에서 첫 입맞춤을 이루었다.



## 2학년 6반 반별 한마디 릴레이 소설

주제: 코믹

- 20601 강지연: 중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. “이랏샤이마세”
- 20602 김나영: ... 니 내 누군지 아니?...
- 20603 김미소: 타코야키 먹으러 왔을 텐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?
- 20604 김 민: 여기 무슨 타코야키가 맛있나?
- 20605 김민경: 아니 나 타코야키 먹는데 가쓰오부시 살아있는 줄 알고 눈물을 흘렸다.
- 20606 김민서: 하지만 난 눈물 젖은 타코야키를 다 먹어치우고... 길을 나선다.
- 20607 김서연: 미친 개를 만났다.
- 20608 김서진: 미친 개가 입을 열었다.
- 20609 김서희: 그리고 짖었다.
- 20610 김예지: 개가 말했다. “문어가 타코야키를 먹다니.”
- 20611 김태언: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가 말했다. “..... 제노다!”
- 20613 박시울: 이 모든 건 다 꿈이었다.
- 20615 서나리: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선.
- 20618 엄정민: 중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. “타코야키가 너무 좋아서 일본어로 전향하기로 했어요~”
- 20619 오민지: 중국어 선생님께서는 꿈속 얘기를 노래로 만들어 일본어로 부르셨다.
- 20621 윤신영: “와스레나이...” 갑자기 선생님께서 스모크 챌린지를 추다가 넘어지셨다.
- 20622 윤지애: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슬립 백을 추기 시작하셨다.
- 20623 이수민: 교실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걸 찍어 릴스에 올렸다.
- 20624 이윤주: 릴스가 1000만 뷰를 찍었다.
- 20625 이화영: 1000만 뷰의 비결은 릴스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...
- 20626 전서영: 중국어 선생님이 현지 중국인과 대화하는 장면이었다. 그 내용은 바로...
- 20627 정아영: Nǐ shì 상은 초전도체 ma?(你是吗?: 당신은 초전도체입니까?)
- 20628 정아인: はい!(네) 나는 초... 전... 도도... 도둑... x2 체다. 난 타코야키 가게를 차릴 거야.
- 20630 황지수: 선생님의 가게는 대박이 났고 종소리가 울리며 중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. “이랏샤이마세...” “니내누군지아니?... ”

## 2학년 7반 반별 한마디 릴레이 소설

주제: 호러

- 20701 강한별: 나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다.
- 20702 김소민: 잠에서 깬 나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다.
- 20703 김주영: 화장실에서 거울을 본 나는 그대로 기절했다.
- 20704 박선홍: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니 내 눈 앞에는
- 20705 박준희: 또 다른 내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.
- 20706 박채린: '그날' 이후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.
- 20707 박혜원: 그날은 갑자기 화장실에 있는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져 있었다.
- 20708 박희은: 떨어진 물건을 주우며 우연히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
- 20709 배가영: 내가 하는 행동과는 달리 가만히 서서 소름 끼치게 웃고 있던 '나'와 마주쳤다.
- 20710 배수현: \_
- 20711 배찬미: 등골이 오싹해지며 굳어지는 거울 속 내가 말을 걸었다.
- 20712 백지예: "너는 누구야?" 거울 속 '나'의 질문에 나는
- 20713 승 리: "어..." 너무 이상하게도 입이 떼어지지 않았다.
- 20714 신다영: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.
- 20715 안미정: 누군가 들어오면서 나에게 소리쳤다.
- 20716 오주현: "대답하지 마!! 절대 대답하면 안 돼!"
- 20717 오지윤: 그 외침을 듣자 굳어있던 몸에 점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, 거울 속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.
- 20718 오하늘: 이야영은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다.
- 20719 이야영: 아영이 남친 박병찬이 거실에서 아침밥을 만들고 있었다. 그 식사는 둘의 마지막 식사였다.
- 20720 이야현: 독이 든 아침을 같이 먹은 뒤 박병찬이 아영이의 친구 아현이에게 사실을 고백하러 나갔다.
- 20721 이지민: 아영은 현관문을 나서는 병찬을 막으려 했지만 누군가 목을 조르는 양 어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.
- 20722 이해인: 그러자 박병찬이 아영을 돌아보며 말했다. "아영아, 이거 꿈이야." 아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다.
- 20723 전경민: 이야영은 잠에서 깨자마자 거실로 나가봤다.
- 20724 정소은: 거실로 나가니 소파에는 정소은과 이야현이 어떤 남성과 함께 앉아있었다.
- 20725 정아진: 그 남성은 이야영의 꿈에 나왔던 그 남성이었다.
- 20726 정희진: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보니 그 남자는 없었고 이야영의 망상이었다.
- 20727 최서영: 사실 아영이는 편집증이였다.
- 20728 한지화: 이야영은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또 다른 '나'를 보았다.
- 20729 허다경: 거울 속의 또 다른 '나'가 사라졌고,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. 아영이 자신조차도...
- 20730 현소민: 차가운. 계절이 얼마 남지 않은 11월의 어느 날이었다...

## 2학년 8반 반별 한마디 릴레이 소설

주제: 로맨스

20801 강다현: 난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다...

20802 강소은: 그때는 무더운 여름...

20803 구예원: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그녀에게 고백했었지... "네가 내 하루의 모두를 차지했으면 좋겠어..."

20804 김가희: 그때 몰랐었지... 하... 보고 싶다...

20805 김보은: 넌 어디쯤 있을까... 넌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?

20806 김세영: 빛나던 그때 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말해줄게. '잘 지내자, 우리.'

20807 김정안: 생각을 하자마자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.

20808 김지우: '혹시 그녀일까...? 심장아 나대지마...!!!'

20809 박민지: "동현아." 그녀의 목소리가 확실했다.

20810 박소현: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뒤돌았다.

20811 박수민: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. "안녕, 오랜만이야."

20812 박시연: 그녀가 웃을 때 말려올라가는 입꼬리는 여전히 예뻐다.

20813 박햇님: 놀란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오랜만이라며 밥 약속을 잡는다. "시간 괜찮으면 나중에 밥 한 끼 하자."

20814 박혜인: 그러나 나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대답은 이랬다. "나 한 달 뒤에 결혼해."라고...

20815 서영은: 나는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 대답했다.

20816 선준빈: "야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? 못 들은 걸로 할게."

20817 성유빈: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. "역시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..."

20818 심가영: 눈을 떠보니 몇 년 전 그녀와 연애했던 시절로 와있었다.

20819 양서영: 기쁘고 행복해서 말없이 그녀를 안았다.

20820 양효민: 그녀도 나를 안았다.

20821 오가윤: 그때 나와 절친이었던 재현이가 등장했다.

20822 이원지: 재현이가 우리에게 인사했다.

20823 임은비: 나는 오랜만에 보는 재현이에게 반갑게 인사했다.

20824 임자현: 그러고는 재현은 그녀와 같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눈치껏 가던 길을 갔다.

20825 장여원: 그녀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. "동현아 우리 오늘은 뭐 할까?"

20826 장예나: "넷플릭스 보러 갈래?"

20827 팽정선: 라는 말에 나는 긴장했다.

20828 황지영: 다음 편에 계속...

## 2학년 9반 반별 한마디 릴레이 소설

주제 : 호러

- 20901 고은빛: 점점 내게 다가오는 발소리... 왜 이렇게 된 것일까...
- 20902 고정현: 발소리가 점점 커져온다.
- 20903 권예은: 발소리가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...
- 20904 권혜진: "똑똑" 몇 초 간의 정적 후 밝고 명쾌한 노크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.
- 20905 김유리: "끼이익"
- 20906 박예은: 나는 재빨리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겼다.
- 20907 서주연: 아... 사실 내 방귀소리였다.
- 20908 손수민: \_
- 20909 안시현: "뭐야... 아무것도 아니었잖아... 괜히 쫓았어"
- 20910 양선경: 그 순간 오른쪽 발목에 무언가가 닿은 게 느껴졌다.
- 20911 윤도경: 확인하기 위해 식탁에서 서서히 나오는 그 순간
- 20912 윤주향: 내가 일주일 전에 쓰레기통에 버린 한 아이가 나에게 준 관절 인형이었다.
- 20913 이보은: 자세히 보니 항상 웃고 있던 관절 인형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.
- 20914 임세정: "까아아악!!" 나는 소리를 지르며 관절인형을 내동댕이쳤다.
- 20915 장지우: 그 순간 관절 인형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.
- 20916 전서연: 관절 인형은 웃음소리를 점점 크게 냈다.
- 20917 전예림: 소름끼치는 웃음소리에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.
- 20918 조유나: 그 끔찍한 웃음소리가 멈추더니 인형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.
- 20919 조은수: '이젠 네 차례야'라는 말과 동시에 나는 안방 옷장 속으로 몸을 숨겼고 내 옆에는 머리가 없는 시체가 있었다.
- 20920 조은우: 분홍색 후드, 파란색 운동화... 그 시체는 알고 보니 나에게 인형을 준 아이였다.
- 20921 주민정: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... 이젠 내 차례라는 것을...
- 20922 진다윤: "똑똑똑..." 옷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.
- 20923 천수현: 11월 16일 대개봉 에나벨!!!